

추 모 사

우리나라 선문의 초조이시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이신 도의국사의 각령 전에 분향 배례하고 삼가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.

국사께서 일찍이 구법의 길에 올라 교학을 두루 섭렵하고, 다시 육조의 선법을 이어 해동의 초조가 되니, 마침내 이 땅에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큰 도를 열어 주셨습니다. 선법(禪法)이 전해진 이래로 비밀한 여래의 심인이 열리고, 마침내 강산의 곳곳에 구산선문이 개창하니 백두대간의 신령스런 산마다 아홉 개의 연꽃이 만개하여 중생제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.

국사께서 서라벌 같은 대처와 귀족의 호화로운 관심을 마다하고 더 낮은 곳을 찾아 하화중생을 행하고자 하신 것은, 척박한 땅과 가난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소박한 그들의 마음 밭에 깨달음의 씨를 뿌리고 진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습시다. 다시 한 번 비우고 내려놓는 동시에 더 크게 나누는 동체대비의 실현이었습시다.

국사께서 몸소 비움과 나눔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조화와 상생이라는 보살행을 펼친 이래로, 불교는 이 땅의 백성들과 지혜와 자비를 나누는 실천을 계속하여 왔습시다. 모든 중생이 자신의 생명가치를 마음껏 발휘하면서도 서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공존과 조화의 공동체를 추구하여 왔습시다. 도의국사의 이와 같은 실천은 공존과 번영이라는 상생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의 우리 현실에 큰 가르침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.

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교법이든, 선법이든 모든 중생을 이익 되고, 안락하고,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. 종조께서 이 땅에 선법을 전하신 이유도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한 자비심의 발로에서

이루어진 일일 것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 우리 후학들이 부처님과 종조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욱 더 자명해집니다. 그것은 모든 생명이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. 빈부와 귀천, 이념과 종교, 인종과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넘어 평등과 존엄의 가치위에 설 때, 우리의 생존이 모든 유정, 무정의 도움과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인식할 때 참다운 공동체가 구현되는 것입니다.

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이와 같은 진리 위에서 우리는 샅된 가치를 버리고 이웃을 위하는 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움 동행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가치를 선양하고 상생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지금 우리 후학들이 종조의 가르침을 바르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. 이제 모든 종도가 그 길로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.

우리 종문의 근본이신 도의국사시여!

오늘 다례를 맞아 모든 종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맑은 차와 공양물로 종조의 큰 덕을 추모하며 그 가르침을 구현하고자 서원하오니 모쪼록 큰 자비로 섭수하시고 종단의 앞날을 가호하여 주시옵소서.

불기2557년 6월 10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분향